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포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사람의 전통과 진리가 충돌할 때

(마 15:1-20)

When Men's Tradition Collides with the Truth

(Matt. 15:1-20)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주 야단을 맞아서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리새'는 '거룩을 위해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바리새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어찌하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열심은 특성이어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오고자 120km의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고작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어찌해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때 손을 씻지 않는냐는 것입니다(2절). 특별히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풍습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전통도 너무 비약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한 영혼을 죽이는 병폐가 되는 것을 설명하시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6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4-6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에도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결국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하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1절)고 하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으로 나오는 말들,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 오랜 시간이 쌓여가자 손 씻음은 곧 성결함으로 변해 갔습니다. 이런 막강한 전통은 정말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전통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과 함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전통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전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교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사람과 교회의 전통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과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13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전통이 아닌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n argument brought out between Jesus and Pharisees is written in this text. When we read the books of the Gospel, we are apt to think that Pharisees were bad people because Pharisees were blamed by Jesus. As 'Pharisee' means 'to be discriminated for holy', there are a great many Pharisees who observe Jesus words, and they try to be devout and live their pious life. Moreover, because their enthusiasm is especially strong, we notice that the Pharisees in the text did not mind running a long way of 120 km to come to see Jesus Christ.

And there, they came a long way, and they only asked Jesus "Why do your disciples not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at?" (v. 2). Particularly Palestine is full of dust, owing to a custom of which they eat food with their hands, and then washing their hands is very essential in sanitation. But Jesus explained the malady of which a good tradition would nullify the word of God and a soul will be put to death if it overdoes, and said that you would nullify the word of God for the sake of tradition (v. 6). Jesus also said that the Pharisees insisted on their tradition and broke God's word in the following: God sai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and mother must put to death."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a gift devoted to God," he is not to 'honor his father' with it.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for the sake of tradition"(vv. 4-6).

Jesus' words about refer to God's people who were called, and loved God with their lips without thinking in their mind. After all they were egocentric and took valuable things. And then, about the problem of washing hands, Jesus said, "what goes into a man's mouth does not make him unclean, but what outcomes from his mouth, that is what makes unclean" (v.11). He says that what goes in our mind makes us unclean but rather words from our mouth, in other words, evil thought, murder, adultery, sexual immorality, theft, false testimony, and slander make us unclean.

The Pharisees thought that washing hands made themselves clean. As a traditional rite ensued for a long time, washing their hands changed into holiness and purity. Such a strong tradition really makes them lose what is holiness and p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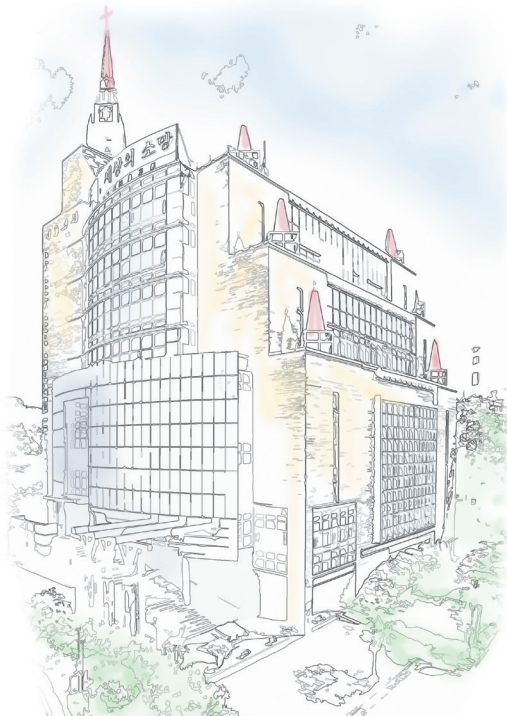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As a long time has gone, we should look back on what the tradition situated in us is. We should examine whether we have the tradition that is situated in its absolute truth before we realize it. We also have to check whether or not because the tradition weighs too heavy, it may collide with God's word, or,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n God's word.

The blood of Jesus Christ's cross is more important than in any other people or church. The tradition of people and the church does not make us clean but the blood of Jesus does, and we do not have to be proud of people and the church, but we only are proud of the blood of Jesus Christ's cross.

"He replied, 'Every plant that my heavenly Father has not planted will be pulled up by the roots'" (v. 13).

We are the people who are planted in the world of God. Therefore, on a basis of God's w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healthy Christian in the greatest wonderful and healthy churc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금주의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유아,유치,유년부 : 25(금)~27(주) / 교회
 중등부 : 24(목)~26(토) / 아가페타운
 에바다부 : 24(목)~26(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5(금)~27(주일)	서울교회	예수님의 사랑, 온세상의 광명!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사랑 나눔 미션을 수행하라	양세라 목사
유년부			나는 믿음의 사람,인내의 사람!	김안성 목사
초등부	7/30(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최만혁 전도사
중등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나는 순금이 좋다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7/31(목)~8/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노철 목사 / 천세종 목사
청년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청년2부				
에바다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예수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7)

(문 137)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왕 입니까?

(답) 전도서 1:1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Delitzsch, Hengstenberg, Leupold, Young, Zoeckler)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G.S. Hendry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Guthrie, New Bible Commentary, p.571)

솔로몬을 저자로 볼 수는 없으나 솔로몬 자신을 말씀과 관계된 회중으로 언급하는 것이 같은 철학적인 말을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것이라는 말씀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ben)은 후세대(손자, 증손자등)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다윗의 아들이 반드시 솔로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할 만한 지혜자가 없앴고(1:16) 유례가 없는 부(2:8)와 엄청난 수의 노비(2:7)와 무한한 향락(2:3)과 거대한 건축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솔로몬 외의 다른 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저작설을 크게 부인하는 학설 중 하나는 언어학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언어나 단어가 주전 10세기의 히브리어나 아람어 문서들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델리취는 96%의 단어를 찾아내었습니다. 헝스텐버그는 12장 중에서 10개의 아람어 형식의 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주전 5세기경의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은 전도서에 주전 5세기의 것과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토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형식은 주전 10세기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James Muilenberg는 콤란동굴 4번에서 2세기 중엽 전도서의 조각이 발견된 것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언어학적으로 독특하다 Qohelet(word, 단어)은 Canaanite-phoenician의 것으로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되었으나 spelling, 문법, 단어는 phoenician것으로 Canaanite-phoenician 문학의 영향을 보여준다.' (Biblica 33, 1952, pp35-52, 191-221)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phoenician 지혜문학을 많이 읽었습니다.(왕상4:30-34) 언어학적으로나 비교문학적으로 보아 주전 10세기 즉 솔로몬의 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2013년 사랑의 바자 수익금 선한 사업에 사용

7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는 2013년 9월12일(목)-13일(금) 양일간 실시되었던 2013 사랑의 바자 수익금으로 해외선교사 사역지역 우물과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추석 및 성탄을 맞아 대내외의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 및 단체에 후원하는 한편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와 탈북 난민 돕기, 아가페타운 지원 등에 사용하였다.

올해는 오는 9월 25일(목)-26일(금) 양일간 사랑의 바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바자 수익금도 2013년과 같이 대내외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3독〉 1명 : (10교구) 오치열 장로
 〈2독〉 3명 : (11교구) 이영자 권사 (12교구) 박명석 권사 김신영 성도
 〈1독〉 12명 : (3교구) 송인혁 성도 (4교구) 광태수 집사 조애자 성도 (6교구) 강영순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0교구) 임훈규 장로 (11교구) 국산옥 권사 (12교구) 하정자 권사 이용자 권사 정희순 권사 신봉하 집사 송성식 집사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교회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병대 강화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2사단 교회

- ① 교회 본당 내부 수리 전, 후
- ② 교회 입구 현관 수리 전, 후
- ③ 교회 현관 기둥 수리 전, 후
- ④ 유아실 벽면 수리 전, 후
- ⑤ 유아실 벽면 수리 전, 후



B.B.S. 주일에도 합니다



윤동수 집사
(유치부 부장)

BBS는 'Biblio Bible School'의 약자입니다. BIBLIO는 '책'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BBS는 성경의 이야기를 재료로 해 아이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BS는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을 창조적으로 재현해 아이들의 자발성, 창조성, 통찰력을 증진시키고 역할놀이, 집단역동 등을 통해 사회성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3월8일 시작된 제1기 BBS에서는 25명의 유치부 연령(6,7세) 아이들이 10주 동안 성경 속 인물과 자신을 동화시키는 체험을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 상상력과 통찰력을 키웠습니다.

1기 BBS에 자녀들을 보내셨던 학부모님들의 반

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BBS를 진행하시는 유치부 양세라 목사님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치부 친구들의 성향, 장단점 등을 분석해 이를 학부모 상담시간에 부모님들과 공유해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것과,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두 번의 프로그램이 유익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1기 BBS때 참여하고 싶었던 아이들 가운데 인원 제한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9월20일(토) 시작하는 2기 BBS는 인원을 36명으로 늘렸습니다. 1기 BBS 수료생 25명 외에 추가로 열 한 명을 더 모집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2기 BBS 참가 신청은 7월20일(주일) 오전 9시부터 유치부실(702호) 앞 안내 데스크에서 선착순**로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기 BBS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늘렸지만 여전히 집이 멀어 토요일

BBS 프로그램에 올 수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토요일에 실시되는 BBS를 주일로 확대시켰습니다. 좀 더 많은 친구들이 BB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유치부 분반공부 시간에 공동체 활동과 말씀 연계를 통한 신앙 통합 프로그램 BBS가 진행되며, 주일에 진행되는 BBS는 유치부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대그룹 활동으로 특별히 인지, 통각 및 사회성, 정서, 성품, 오감 교육에 중심을 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지난 6월29일 주일에 첫 주일 BBS를 시작했고, 오늘 (7월27일)에 두 번째 주일 BBS가 진행됩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BBS를 통해 평생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부 연령(6,7세)의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에바다부 여름 수련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에바다부 지도)

살롬!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육적으로 지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육적보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신앙생활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며 오는 7월24(목)~26(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에바다부 수련회에 에바다부 가족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에바다부 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확에 관심 있으신 서울교회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되며 영적 생활이 새롭게 되어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주는 에바다부 가족이 되어 영적, 육적으로 신앙이 한층 성숙해가며 강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데 에바다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2014 청년부 국내선교에 동참해 주세요

청년부 올 여름 수련회는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는데 것이 아닌, 청년 1, 2부가 연합으로 2014년 8월 12일(화)~16(토) 4박 5일 동안 경기도 광주에 있는 5곳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광주지역 교회들은 교회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이에 우리 청년부는 국내선교를 위한 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헌금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1층에서 써빙되는 아이스커피를 시원하게 드시고 감동되시는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봉헌시간에 헌금봉투에 "청년부 국내선교 후원"이라고 써서 내 주시면 100% 청년부 국내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두호 (청년2부 회장) 홍소희 (청년1부 회장)





장년부 소후반 교사를 찾습니다



김경철 집사
(장년부 오후반 회장)

주일 3부 예배 후 장년부 오후반이 있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듯하여 장년부 오후반을 소개합니다.

장년부 오후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년부 오후반은 가족의 영적 리더인, 부부의 영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다음세대로 성장시킵니다. 넷째, 가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신자 전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다섯째, 교회안에 소외되기 쉬운 30~40대 성도들을 신앙안에서 하나로 묶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오후 3시30분~4시 50분에 702호에서 모여 성경공부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아이들은 교사 지도 아래 7세 이하와 초등학교로 구분하여 눈높이에 맞는 성경학습지 활동 및 미술을 통한 자존감 형성 및 성품에 초점 맞추어 차세대 리더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장년부 모임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날로 부흥을 더하리라 생각됩니

다. 이를 위해 아이들 교육을 섬겨주실 교사님들을 더 모시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그리고 저희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모임 참여와 교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B.M.W.운동에 동참



Bus



Metro



Walking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1일(월)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입정정리를 위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22일(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25일(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결의대회를 갖는다.

■ 이사 : 이영조 집사 이영자1 권사 가정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656-1

■ 득녀: 11교구 채규재성도 안혜민성도 (안흥희집사 전화전권사 장녀)

■ 교역자 휴가: 서명철 목사(7.21-28) 대행 장석남 목사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도회(7.20)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7.27)

■ 금주의 식사 제공 :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하영인 성도 이경진 성도, 하해심 성도 김관섭 성도, 하상영 성도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손길

지난 7월 14일~15일 양일간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호산나대학을 방문하여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운동장의 잔디도 깎아주시고, 죽어가는 나무들도 베어 주셨습니다. 또한 나무그늘에



정자를 3곳이나 직접 설치하여 학생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평화의 집 누수방지공사를 직접 해주신 데 이어 이번에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며 호산나대학의 이곳 저곳을 살피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여름캠프를 떠나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일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사를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개학 후 바뀐 학교를 보고 즐거워하며 서울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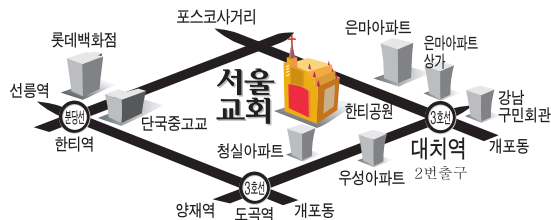
항상 호산나대학을 보살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산나대학 교직원들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호산나대학 학생들을 키우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중 선생(호산나대학 부장)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